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양상: 「눈길」을 중심으로

한 미 애
(동국대_서울)

1. 서론

소설이란 본질적으로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자신의 인지공간(정신공간)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또는 경험하지 않은 일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구성한 다음, 그 이야기를 언어로 텍스트에 표현한다. 작가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등장인물 간의 관계, 실체 등으로 이야기 세계의 틀을 구성한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인지공간에서 이야기 세계의 틀을 재형성한다. 이 이야기 세계를 꾸러나가는 도구는 언어이다. 미술에서는 선과 색깔로 세계를 표현하고, 음악에서는 음으로 세계를 표현하듯, 소설은 언어로 이야기 세계를 표현한다. 언어 자체가 소설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야기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번역할 때에 언어는 바뀌어도, 이야기 틀이나 형상화된 이야기 세계는 목표독자의 인지공간에 남게 된다.

소설에서 배경, 등장인물, 실체 등의 이야기 틀은 ‘직시어’(deixis)로 나타낼 수 있다. ‘직시어’는 화자나 청자의 발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언어형태를 말한다(Zubin and Hewitt 1995: 129). ‘deixis’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pointing’ 또는 ‘reference’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체(reference)’와는 구별된다. 지시체는 화자와 관계없이 지시대상이 동일하지만, 직시어는 화자에 따라 지시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히 알려면 문맥적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시체에는 ‘눈길, 집, 초가지붕’ 등이 포함되지만, 직시어에는 ‘나, 너, 이것, 저것, 여기, 오늘’ 또는 ‘시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시어는 화자가 ‘직접 가리킨다’는 의미로 “직접가리킴 말”(노석기 1986) 또는 “직접 지시”(민경모 2012)의 줄임말로 이해할 수 있다.¹⁾

직시어는 소설 텍스트에서 이야기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말해주는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관점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Bosseaux 2007: 35)을 한다. 직시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번역본에서 형상화되는 이야기의 틀과 서술자의 관점이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양상에 따라 등장인물간의 관계나 등장인물의 인식과 의식이 다르게 설정되어 소설의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직시어 번역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괄하고, 텍스트 세계 이론과 직시어동 이론을 통해 소설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독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구성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그 다음 ‘사례 분석’에서는 이청준의 「눈길」과 두 종류의 목표텍스트(TT)에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관계와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유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시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직시어 번역양상과 소설의 개연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청준의 「눈길」을 택한 이유는 서술자인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나’와 ‘노인’으로

1) ‘deixis’는 직시, 직시어, 지시어, 가리킴, 담화지시, 화시, 화시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한국언어정보학회), ‘직시’라는 용어는 영어학을 비롯한 타 언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화시라는 용어는 한국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민경모 2012). ‘deixis’와 ‘indexicality’는 개념이 같아서 상호교차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deixis’는 주로 언어학에서, ‘indexicality’는 주로 철학에서 사용된다(Al-Azzawi 2011). 직시어의 전통적 범주는 인칭(person), 장소(place), 시간(time)으로 분류된다.

설정되어 있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이나 의식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시어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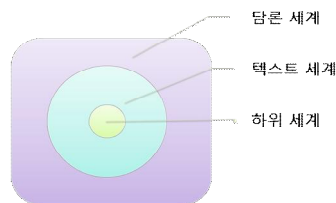
2.1 직시어 번역에 대한 기존 연구

직시어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나 영어 등 각 언어와 관련해서 또는 두 언어 간 대조와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번역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다. 한정은(2005)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직시어 중 인칭 직시어에 주목하여 영화 <침밀>의 자막번역을 분석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인칭 직시어의 체계가 달라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하면 어색하므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공손성을 살려야 한다고 논의한다. 변선화(2001)와 조의연(2009)의 경우, 직시어라는 용어보다는 지시어(demonstrative)라는 용어로 ‘this’, ‘that’의 번역양상에 접근하고 있다. ‘this’, ‘that’에는 직시적 기능과 비직시적 기능이 있는데, 변선화(2001)는 직시적 기능과 비직시적 기능을 모두 연구한다.²⁾ 불어와 한국어의 ‘이, 그, 저’의 특징을 대조 연구하고, 한불번역이나 불한번역에서 대응 양상을 문학텍스트에서 사용된 경우와 일반텍스트에서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조의연(2009)은 ‘this’, ‘that’, ‘이’, ‘저’의 직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서 직시어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The Catcher in the Rye*와 『모순』에서 분석한다. 인지화용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번역에서 직시적 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원천텍스트의 메시지에 대해 번역가가 그 의미를 해석한 결과로 본다.

2) this, that의 직시적 기능은 직시 중심인 발화자와 관련된 시·공간적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직시적 기능은 발화자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Holger Diessel 2012: 12). 예를 들어, ‘이 꽃(this flower)’이라는 표현은 발화자와 꽃이 가까이 있는 경우이며 ‘저 꽃(that flower)’이라는 표현은 발화자와 꽃이 멀리 있으므로 this와 that은 직시적 기능을 지닌다. 반면, ‘이런 저런 방식(this or that way)’에서 this, that은 발화자와 사물의 위치가 가까운지 여부와 상관없이 없으므로 비직시적 기능을 지닌다.

2.2 텍스트 세계

직시어는 텍스트 세계(text world)와 관련되어 있다. 텍스트 세계 이론은 화자나 작가가 특정 개념이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발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청자나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워스(Paul Werth 1995, 1999)가 제시한 이론이다.³⁾ 워스는 텍스트 세계 이론에서 세계를 담론 세계(discourse world), 텍스트 세계(text world), 하위 세계(sub-worlds)로 구분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텍스트 세계

담론 세계는 의사소통 참여자인 저자와 독자가 거주하는 실세계이다. 이 실 세계에서 담론은 저자와 독자와의 상호 노력으로 가능하다(Werth 1999: 17). 워스에게 담론(discourse)이란 “시작과 끝이 있는” “완전한 언어 행위(language event)”(Werth 1999: 1)이며 “전개되는 진술이 일관성 있고 완전하게 의미가 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생산자와 수용자 편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된 노력이다”(51). 따라서 담론은 공통 근거(common ground)를 협상하려는 상호적인 시도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정보성(communicativeness), 일관성(coherence), 협력(cooperativeness)이 필요하다(51).

담론의 주제가 ‘이야기’인 것이 텍스트 세계이다(Werth 1999: 87). 텍스트 세계는 언어로 묘사되는 이야기 세계로, 허구적 사건이 일어나는 “개념적 공간(conceptual space)”(Werth 1995: 181)이며 “정신적 구조물(mental constructs)”

3) 텍스트 세계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Werth 1999: 51). 정신공간 이론은 일반 언어학과 인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반면, 워스의 텍스트 세계 이론은 픽션과 문학 분석에 좀 더 초점을 둔다(Semino 2009: 56). 따라서 텍스트 세계는 문학텍스트의 문학성을 분석하는 인지시학의 한 모형이 된다.

(Werth 1999: 7)이다. 따라서 독자와 저자가 거주하는 담론 세계를 통해 텍스트 세계가 구성된다. 텍스트 세계는 독자가 경험한 ‘실제’ 외부 환경과 그 속에서 인식한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기억,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단독적으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 혼자서 의미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텍스트에 표상된 언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관한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위스(1999)에 따르면, 텍스트의 세계는 세계 형성하기 요소(world-building elements)와 기능전진하기 명제(function-advancing proposition)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형성하기 요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러한 배경에 존재하는 실제, 등장인물 등의 이야기의 틀을 말하는데, 이 틀은 직시어나 지시체를 통해서 형성된다(표1 참조). 기능전진하기 명제는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플롯 전개과정이다. 요컨대, 텍스트 세계는 언어가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된 이야기 세계이며, 문학 텍스트에 형상화된 언어를 독자가 읽으면서 상상해나가는 허구적 세계이다.

하위 세계는 등장인물의 태도나 인식, 생각 또는 과거에 대한 회상 등을 표현한 정신 세계이다. 허구적 세계인 텍스트 세계는 담론 세계처럼 자체의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Werth 1999). 이야기라는 텍스트 세계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도 각기 담론 세계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처럼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 등장인물의 하위세계는 직시어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텍스트 분석에서 살펴볼 것이다.

2.3 직시이동

소설에서 일어나는 직시이동 현상이 보편적인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 직시어의 보편적인 속성을 먼저 살펴보자. 직시어는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언어현상”(Galbraith 1995: 21)이다. 예를 들면, 화자는 청자를 가리킬 때, 한국어로 ‘너’, 영어로는 ‘you’, 불어로는 ‘tu’나 ‘vous’라고 할 수 있다. ‘너’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되고, ‘you’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되며, ‘tu’는 격이 없는 사이에서 ‘vous’는 존칭어로 사용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직시어라는 근

본 개념은 발화자나 문맥에 따라 지시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직시어는 보편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화자는 자기 자신을 직시 중심(dietic center)으로 여기고 직시어를 사용한다. 즉 화자를 중심으로 가까운 물건은 ‘이것(this)’으로, 먼 물건은 ‘저것(that)’으로 가리킨다.⁴⁾ 또 화자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고 청자를 ‘너’라고 한다. 하지만 허구 이야기인 소설을 읽을 때에는 자아중심적인 직시어 개념을 유보하고 직시 중심을 텍스트 이야기 문맥으로 투사하여 직시어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설의 ‘나’는 독자인 ‘나’가 아니라 텍스트 세계에 존재하는 ‘나’이므로, 독자는 텍스트 세계의 문맥에 따라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입장으로 ‘나’를 해석하고 텍스트 세계를 이해한다. 직시어를 통해 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 세계에 몰입하여 등장인물이 겪은 경험을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직시이동 이론(Galbraith 1995, Segal 1995)과 관련이 있다.

직시이동 이론(deictic shift theory)은 독자가 이야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 인지적 자세를 취하여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방식과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작가와 독자는 마치 자신들이 이야기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해석한다. 작가는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안의 특정 관점을 취하고, 독자는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특정한 관점을 따라간다. 대부분의 독자는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린다. 독자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위협에 빠지면 걱정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거나 울기조차 한다(Segal 1995: 14-15). 요컨대, 직시어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야기 세계의 틀을 형성하고 독자의 의식이나 관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 세계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4) 한국어와 영어의 장소 직시어의 차이는 중간거리 개념의 유무이다. ‘이’, ‘this’는 화자에게 가까운 근거리를 가리키고, ‘저’, ‘that’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원거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같다. 차이는 한국어의 ‘그’는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에게는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런 중간거리 개념은 영어에는 없다는 것이다(김기찬 1989).

리차드슨(Bill Richardson)에 따르면, 직시어동 현상은 번역된 목표텍스트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 여기, 지금’은 목표독자가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this’는 ‘저것’으로 ‘here’은 ‘저곳’ 등으로 독자 상황에 맞게 직시어가 변형이 된다(1998: 125). 예를 들면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이 ‘The village on the northern side of the 38th parallel frontier’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원천독자에게 ‘이 북쪽 마을’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목표독자에게는 이국적 공간이 되므로 ‘이’라는 직시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그 자체가 인지공간에서 구성되는 정신적 구성물이어서 원천독자처럼 목표독자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상상적 도약을 하고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기에, 소설을 번역할 때에는 “등가적이며 화용적 효과”(Richardson 1998: 137)를 살려야 한다.

3. 사례 분석

3.1 분석 텍스트

분석 텍스트인 「눈길」은 1977년 『문예 중앙』 창간호에 발표된 이청준의 단편 소설이다. 서술자인 ‘나’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사는 노모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난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를 만큼 어머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이 고향집에 찾아와도 변변한 집이 없는 처지를 아들에게 무척 미안해한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나’는 어머니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새벽 눈길을 밟으며 자신을 배웅해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속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나’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TT1은 피커링(Julie Pickering)이 번역한 “Footprints in the Snow”(1999)이며, 코넬 대학에서 출판한 *The Prophet and Other Stories*에 실려 있다. 피커링은 한국의 전통적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편집자이자 번역가로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다. TT2는 이현계가 번역한 “The Snowy Road”(2004)이며,

「눈길」의 원문과 함께 실려 있다. 이현재는 전문번역가로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번역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후원하는 1989년 번역상 수상작가이며 대산문화재단(1995)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9)의 번역 지원금 수혜자이기도 하다.

2장의 텍스트 세계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야기 세계의 틀은 직시어와 지시체로 구성될 수 있는데, 「눈길」의 이야기의 틀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등장인물 중 ‘나’는 인칭 직시어에 해당이 되며, 노인(어머니), 아내와 형, 형수, 조카들도 모두 ‘나’와 관계된 인칭 직시어에 해당된다.

〈표1〉 「눈길」의 이야기의 틀

이야기의 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등장인물 관계	실체(entity)
직시어 (deixis)			나, 노인(어머니), 아내, 형, 형수, 조카들	나의 가족	
지시체 (reference)	어느 해 겨울	시골			눈길, 고향집, 초가집, 방, 등

3.2 직시어 번역양상

3.2.1 ‘나’와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

「눈길」은 서술자인 ‘나’와 ‘나’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큼, 텍스트 세계 즉 이야기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와 어머니의 관계 설정이다. ST에서 ‘나’는 어머니를 텍스트 전체에서 노인이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어머니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심리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 TT1과 TT2는 번역양상이 크게 다르다. ‘노인’이라는 표현은 TT1에서 ‘the old woman’, TT2에서 ‘my mother’로 번역되어 있다. 이 텍스트에서 노인은 ‘나’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노인과 어머니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를 때 그 노인은 나와 관계가 적은 사람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가 아주 멀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이야기 전개에 아주 중요하다. 가난한 어

머니,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어머니에 대해 ‘나’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어머니를 자신이 도와줄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더욱 어머니를 멀리 한다. 따라서 TT2처럼 노인을 ‘my mother’라고 번역할 경우, 텍스트 세계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표현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1)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나, 노인, 아내가 등장한다. 여기서 노인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나’가 노인에게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라고 말을 꺼낸다. ‘올라가야겠어요’에 ‘가야’는 상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겠’에는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화자의 의지가 동시에 담겨있다. 텍스트를 더 읽어가다 보면 ‘겠’에는 추측보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있었다는 점이 조금씩 밝혀진다. 즉 ‘나’는 초라한 집에 ‘노인’과 같이 있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이렇듯 이야기 세계의 의미 구성은 텍스트에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독서를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형성된다.

(예1)

ST: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 속에서 벌려오던 소리를 내뱉아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본다. (P9)

TT1: “I’ll have to go back tomorrow morning.”

I leaned back from the lunch table and blurted out what had been on my mind all morning.

The old woman and my wife stopped eating and looked across at me quizzically. (P87)

TT2: “We have to leave tomorrow morning”

As I was leaving the breakfast table, I finally managed to blurt out the sentence that I had been contemplating for some time.

Both my mother and my wife stopped eating and gazed at me blankly. (P10)

우선 ‘올라가야겠어요’라는 말은 TT1에서는 ‘will have to’, TT2에서는 ‘have to’로 번역되었다. ‘will have to’에서 have to는 조동사 must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must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have to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TT1은 ST처럼 미래의 추측과 주관성이 동시에 담겨있는 반면, TT2에서는 상황성만 담겨있다. 즉, TT1은 일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과 나의 의지로 올라가고 싶다는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TT2는 일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나’와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표현이라 추측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1)에서 TT1의 첫 장면을 읽는 독자는 텍스트 세계의 ‘나’와 노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단정 지을 수 없는 반면, TT2의 첫 장면을 읽는 독자는 ‘나’라는 주인공이 어머니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원만한 관계로 추측할 수 있다.

‘나’와 어머니의 심리적인 거리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볼 수 있다. 텍스트 전체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 ‘아들아’, ‘얘야’ 등의 애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2)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예2)

ST: 그래서 그저 혼자서 궁리해 본 일이란다. 숨 끊어지는 날 바로 못 내다 묻으면 주검하고 산 사람들이 방 하나뿐 아니냐. 먼 데서 온 누그 들도 그렇고 ... 그래서 꼭 찬바람이나 막고 궁둥이 붙여 앉을 방 한 칸만 어떻게 늘어 봤으면 했더니라마는 ... (P63)

TT1: So I been thinking. Of I don't get buried the day I die, the living will be stuck with the dead in this tiny little room. You two'll be here, you know, after coming all that way . . . So I figured we could add on another room — you know, something to block the wind and give people a place to sit . . . (P95)

TT2: That's why, I suppose, I came up with this wild idea after considerable thinking. When I take my las breath of life, if my body cannot be buried the same day, it will be a big problem. You see, the body and the rest of the family have to stay in the same room. Besides that, what about you and my son who will come such a long distance? That's the reason I had this notion to have an extra room

added in any way I could manage. I just need a small room that can shield us from the cold wind and hold a small person like me. (P64)

‘느그들’이라는 표현을 TT1에서는 ‘You two’로 말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애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TT2에서는 ‘you and my son’라고 말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된다. 이 이외에도 TT1에서는 ST처럼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인해 애칭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TT2에서는 ‘son’(P21), ‘my dear’(P62, P84) 등의 애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TT1에서 ‘I’와 ‘the old woman’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서먹서먹한 관계인 반면, TT2에서 ‘I’와 ‘my mother’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애정과 사랑의 관계이며 서로 배려하는 사이이다.

3.2.2 ‘나’와 독자의 유대관계

직시어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 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독자의 유대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예3)에서 ‘이’라는 직시어의 앞 문장은 서술자인 ‘나’가 지난 일을 과거시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찌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 속에서의 ‘나’의 의식을 나타낸다. 즉 ‘이’와 현재시제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 세계에 살고 있는 ‘나’의 하위 세계(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나’의 생각은 아무 여과 없이 독자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므로 등장인물과 독자의 유대관계가 가까워진다.

(예3)

ST: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P31)

TT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is. It was then that the notion of a debt to the old woman first entered my mind. What if she gets some wild idea? I thought, but immediately recovered my composure. (P90)

TT2: When I was first told all about this movement, my heart sank deeply. At that moment, the idea of owing something to my mother popped into my head. What if she nurtured a futile hope for her dream of a better life? I managed to overcome my anxiety, however, (P29-30)

‘이 노인’이라는 표현은 TT1과 TT2에서 각각 앞 문장에 명사(the old woman, my mother)가 나오므로 대명사(he)를 취했다. 이 부분에서 상실한 ‘이’라는 직시어의 생생하고 현장감 나는 문맥적 효과를 앞 문장에 ‘this’를 덧붙임으로써 살리려 했다. ‘어떠나’라는 현재 시제는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게 되는데, TT1에서는 현재 시제 ‘gets’로 표현하여 이 효과를 살리려 했다. 반면 TT2에서는 과거 시제 ‘nurtured’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의식이 그대로 독자에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독자와의 유대관계는 TT1보다 멀어졌다.

(예4)는 ‘나’가 과거 시점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문법적으로 보면 ‘이번에도’가 아니라 ‘그때에도’가 자연스럽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 속에서 ‘이번에도’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직시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술자인 ‘나’의 현재 시점에서 즉 사건이 일어나던 그 순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된다. 이 생각은 계속 그 다음 문장 ‘위로한다는 것일까’, ‘싶었던 것일까’의 현재시점으로 계속 표현된다. 이렇듯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직시어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의 생각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직접 드러내는 효과가 나고 독자는 ‘나’의 생각을 직접 알게 되므로, 서술자와 독자의 유대감은 가까워진다.

(예4)

ST: 이번에도 또 그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노인을 어떻게 위로한다는 것 일까. 아니면 아내는 노인의 소망을 더 이상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도록 노골화시켜 버리고 싶었던 것일까. (P59)

TT1: There they were, talking about the house again. Was my wife trying to make her feel better, or did she simply want to bring it all out in the open so I couldn't possibly ignore the old woman's wish any longer?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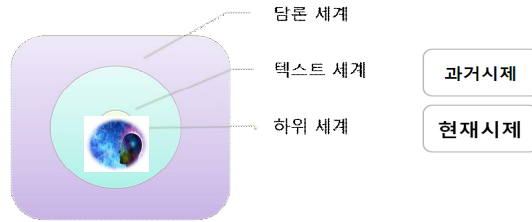
TT2: So my mother was still talking about the house! And was my wife's anger toward me so deep because I had behaved so objectionably and remained so aloof? (P60)

현재 직시어 ‘이’는 TT1과 TT2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There, again’, ‘still’로 각각 번역되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의 ‘나’의 생각 대신 예전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며,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그 다음 문장도 과거시제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ST와 달리 독자가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서술자와 독자의 유대감도 멀어지게 된다. 이번에도를 ‘this time’으로 번역할 경우, 서술의 과거시제인 ‘were’와 호응이 되지 않는 비문처럼 보이지만, 창의적인 시인이거나 작가는 문학텍스트에서 “비전통적이거나 일탈된 언어 형태”(Leech 2008: 12)를 사용하여 “시적 자유(poetic licence)”(Leech 2008: 14)를 누릴 수 있다. 즉 문학텍스트에서는 문법에서 벗어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일탈된 표현을 통해 미학적인 문체 효과를 살릴 수 있다. 또한 보소(Bosseaux 2007: 135)에 따르면, *this time*이나 *now* 등 현재에 속하는 직시어가 과거 동사와 함께 있는 경우, 회고적 기능을 잃고 독자의 눈앞에서 허구적 현실을 창출하는 시제가 될 수 있다.⁵⁾

「눈길」은 과거시제로 서술이 되는데, ‘이’, ‘오늘’ 현재시제 등의 직시어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의식을 나타낼 수 있다. 과거시제의 서술 부분은 텍스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현재시제로 서술되는 부분은 텍스트 세계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 현재시제는 등장인물의 하위 세계 즉 정신 세계를 나타내게 된다(그림2). 따라서 하위 세계를 통해 독자는 등장인물의 생각을 알 수 있으므로, 하위 세계는 등장인물과 독자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과거시제와 ‘now, this, here’ 등의 직시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xt day he was out there same as always. He had his old look to his face, seemed more in control of himself than the day before. This time I had a hunch I had what it was he'd been waiting for. (Carver 1989, “What Do You Do in San Francisco?” (P61)



〈그림 2〉 텍스트 세계와 시제와의 관련성

3.3 직시어 번역양상에 따른 개연성의 문제

3.3.1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따른 개연성

등장인물 간의 관계 설정은 소설이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5)는 ‘나’와 어머니를 나타내는 직시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 텍스트 세계가 있을법한 이야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즉 개연성의 유무를 보여줄 수 있는 예이다. 가난한 노모는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준 것이 없으므로, ‘나’는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텍스트 여러 군데에서 강조한다(P23, P41, P45, P104).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노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애써 정당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노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진 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5)

ST: 노인은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빛이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인 것이었다. (P53)

TT1: Had she forgotten that I didn't own her anything?…… The problem was that sense of debt I felt. All that mattered to me was the fact that I owed nothing. Who cared if she had lost all sense of shame?

Who cared if she had gone senile? In the end,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was that I owed her nothing. (P94)

TT2: I wondered how she could forget that I was not indebted to her for anything at all..... The only important thing for me to remember was that I owed her nothing. Whether she became brazen or senile, I did not care. All that mattered was keeping my position of being debt-free to my mother. (P54)

TT1에서는 ‘I’와 ‘the old man’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므로, 빛을 따지는 계산적인 관계가 있을법한 이야기다. TT2에서는 ‘I’와 ‘my mother’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먼 사이가 아니고 사랑과 애정을 지닌 모자관계이므로, 어머니와 자식 간에 정신적인 빛 문제를 따진다는 점은 개연성이 희박하다. 2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텍스트 세계는 허구적 세계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는 일관성 있는 세계이다. TT1의 텍스트 세계에 살고 있는 ‘나’와 ‘노인’은 개연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TT2의 ‘나’와 ‘어머니’는 개연성이 없는 인물이 된다. 개연성이 없는 인물이 설정되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이야기 세계의 구성은 허술해져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소설의 개연성도 부족하여, 독자는 텍스트 세계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3.3.2 등장인물과 독자의 유대관계에 따른 개연성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의식이 독자에게 그대로 드러나면 등장인물과 독자의 유대관계는 높아지므로, 독자가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이야기의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날법한 개연성도 높아지게 된다. (예6)에서 ST의 이야기는 과거시제로 진행이 되므로, ‘오늘’이 아니라 ‘그 날’이 되어야 시간 개념이 맞게 된다. 하지만 ‘오늘’, ‘내일’이라는 직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와 독자가 마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놓이는 듯한 효과가 난다. 독자는 자아 중심의 직시적 관점 대신 서술자의 직시적 관점 ‘나’로 바꿀 수 있으므로, ‘오늘’, ‘내일’이라는 표현은 과거 시점이 아닌 사건이 일어난 현재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현재 시점은 ‘한다고 그들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

을 수가 있는가'에서 독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독자는 등장인물인 '나'의 현재시점으로 직시이동하여 직접 사건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설의 그럴듯한 개연성은 커진다.

(예6)

ST: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다고 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P51)

TT1: she had whispered earlier that morning in the front yard as she brought me a basin of water to wash with... In fact, she was angry at my sudden decision to return to Seoul because she understood why I felt I had to go. But what can she do about it? I thought. (P93-94)

TT2: When my wife brought a basin full of water for me to wash my face and hands the next morning, she asked me reproachfully...My wife's earnest anger toward my decision to return to Seoul the next morning in such a hurry was mainly because she knew and understood how shamefully I had treated my mother. (P49, P52)

이야기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인지, TT1에서는 '오늘'을 'that'으로 번역하고 '내일'은 번역하지 않았고, TT2에서는 두 낱말을 모두 'the next'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ST처럼 '나'의 현재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했다기보다는 '나'의 과거시점에서 서술했다. ST의 밑줄친 '나'의 현재 생각은 TT1에서 'But what can she do about it? I thought'로 독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도록 번역하였고, TT2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다. 따라서 TT2보다는 TT1이 보다 '나'의 현재시점을 표현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야기의 개연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문맥에 따라 지시대상이 좌우되는 '나, 지금, 오늘'이나 현재시제 등과 같은 직시어는 등장인물의 주관적 경험이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어휘는 독자로 하여금 독자가 존재하는 담론 세계 즉 현실 세계의 문맥에서 벗어나 텍스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 세계에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 텍스트의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텍스트 세계를 보고 이해하며 때로는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독자는 소설을 읽을 때 직시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이야기 세계 안의 등장인물의 직시중심으로 바꾼다. 이야기에 나오는 ‘나’를 독자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세계에 빠지게 된다. 이야기 세계인 텍스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도 담론 세계의 사람들처럼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위 세계 즉 등장인물의 정신 세계가 독자에게 그대로 드러나면 독자와의 유대감이 커져서 소설의 개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4. 결론

사례분석에서 본 것처럼, TT1에서는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를 ‘the old woman’이라고 칭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빚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먼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랑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효과가 난다. 다시 말해 어머니를 노인으로 칭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먼 관계일 때, ‘나’가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TT2에서는 어머니를 ‘my mother’라고 칭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son’, ‘dear’라고 부르는 정다운 사이임에도 ‘나’는 어머니에게 빚진 게 전혀 없다고 수차례 다짐한다. 이러한 모순으로 이야기 세계가 있을 법한 개연성은 부족하게 된다. 또한 개연성은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인 ‘이’, ‘오늘’, 현재시제 등의 직시어와 관련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정신 세계를 나타내는 하위 세계를 목표텍스트에도 반영하면 개연성은 높아질 수 있다. 즉 텍스트 세계에 사는 인물들도 나름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이런 의식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보다 그럴 듯한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텍스트 세계의 의미는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순간에 발생하는데, 등장인물의 관계나 인식을 나타낼 수

직시어는 독자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시어는 이야기 세계의 구성 요소를 결정해 줄 뿐 아니라 소설의 개연성을 높여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천텍스트의 독자처럼 목표독자도 소설을 읽으면서 인지능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의미를 추론하고 형성할 수 있으므로, 소설번역에서 직시어를 잘 살릴 수 있다면 목표독자가 구성하는 이야기 세계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기찬 (1989) 「한국어와 영어의 話示素(deixis) 比較」, 『어문연구』 14: 23-39.
- 노석기 (1986) 「직접가리킴 말(Deixis)의 분류와 쓰임」, 『외대논총』 4(1): 383-396.
- 마희정 (2011) 「이청준의 <눈길>에 나타난 ‘모성성」, 『현대소설연구』 47: 97-229.
- 민경모 (2012) 「Deixis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37: 27-52.
- 박철우 (2011)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한말연구』 29: 141-164.
- 변선화 (2001): 『체계상의 의미 대조와 번역에서의 대응 양상』,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청준의 눈길 <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soseol/i-chung-jun-nun-gil.htm>.
- 조의연 (2009)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번역학연구』 10(2): 207-246.
- 한국언어정보학회 「의미_화용 분야 용어 표준화 이니셔티브」, http://society.kisti.re.kr/~ksli/7s_03htm.
- 한미애 (2013) 『인지시학적 관점의 문체번역 연구: 황순원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한정은 (2005) 「영화 [침밀밀]의 자막번역에 나타난 직시어 번역」, 『통역과 번역』 7(2): 237-252.
- Al-Azzawi, Q. U. D. (2011) ‘Establishing the Effect of Deixis in Translation’,

http://www.google.co.kr/search?sourceid=navclient&aq=&oq=Qassim+Ubeis+Dueim+Al-Azzawi&hl=ko&ie=UTF-8&rlz=1T4ADFA_koKR421&q=Qassim+Ubeis+Dueim+Al-Azzawi.

- Bennett, A. L. (2005) *Expanding Deictic Shift Theory: Person Deixis in Chuck Palahniuk's Fight Club*, Master Theses, http://uknowledge.uky.edu/gradschool_theses/278.
- Bosseaux, C.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New York: Amsterdam.
- Carver, R. (1989) 'What Do You Do in San Francisco?', *Where I'm Calling from; New and Selected Stories*, New York: Vintage Books.
- Furrow, M. (1988) 'Listening Reader and Impotent Speaker: The Role of Deixis in Literature,' *Language and Style*, 21(3): 365-78.
- Galbraith, M. (1995) 'Deictic Shift Theory and Poetics of Involvement in Narrative,' Duchan et al. (eds) *Deixis in Narrative: A Cognitive Science Perspective*, 19-59.
- Holger Diessel, J. (2012) 'Deixis and demonstratives', <http://www.personal.uni-jena.de/~x4diho/Deixis%20and%20demonstratives.pdf>.
- Jeffries, L. & D. McIntyre (2010) *Stylistics*, Cambridge: Cambridge U.
- Leech, G. N. (2008) *Language in Literature: Style and Foregrounding*, Harlow & New York: Pearson Longman.
- Levinson, S. C. (1983) 'Deixis',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54-96.
- Richardson, B. (1998) 'Deictic Features and the Translator,' in Leo Hickey,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124-142.
- Segal, E. M (1995) 'Narrative Comprehension and the Role of Deictic Shift Theory,' in Judith F. Duchan (eds) *Deixis in Narrativ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18.
- Semino, E. (2009) 'Text Worlds,' in Geert Brone & Jeroen Vandaele (eds) *Cognitive Poetics: Goals, Gains and Gap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33-78.

Stockwell, P. (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hornborrow, J. & S. Wareing (1998) *Patterns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Literary Style*, London & New York: Routledge.

Werth, P. (1995) 'World Enough, and Time: Deictic Space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se,' in Peter Verdonk and Jean Jacques Weber (eds) *Twentieth Century Fiction: From Text to Context*, London: Routledge, 181-205.

----- (1999) *Text Worlds: Representing Conceptual Space in Discourse*, Harlow: Longman.

Zubin, D. A. & L. E. Hewitt (1995) 'The Deictic Center: A Theory of Deixis in Narrative,' in Judith F. Duchan (eds) *Deixis in Narrativ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29-155.

<분석텍스트>

이청준 소설, 이현재 번역 (2004) 「눈길 The Snowy Road」, 서울: 스튜디오바프.

Pickering, Julie (trans) (1999) 'Footprints in the Snow', *The Prophet and Other Stories*, New York: Cornell U, 87-106.

[Abstract]

Translation of Deixis in the Fictional Text

Han, Miae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translated deixis influences target readers to construct the frame of a story world (a text world) in a fictional text, which is concerned with the probability of a fiction. For this, first, text world (Werth 1995, 1999) and deictic shift (Galbraith 1995, Segal 1995) theories are explored focusing on the story-constructing process and identification of readers with the character. Second, “Nungil” (The Snowy Road) which is the short story of Lee Chungjun and the two types of target texts, are compared and analyzed concentrating on the relational or perceptual deixis.

The deixis, ‘I’ and ‘the old man’ (in fact, the narrator’s mother), in the source text is translated into ‘I’ and ‘the old woman’ in the TT1, and ‘I’ and ‘my mother’ in the TT2. The two characters living in the text world of the TT1 have a distant relationship, which can maximize the love of a mother that ‘I’ will realize at the end of fiction. By contrast, though the two characters living in the text world of the TT2 have a close relationship, ‘I’ say “I owed nothing to my mother” and “a debt-free relationship” himself many times. Because of this inconsistency, the text world of the TT2 is not likely to be a probable world. Deixis such as the present verbs, ‘this’ and ‘today’ can represent the narrator’s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Therefore, when deixis like this is reflected into the target text, it helps target readers to construct probable text worlds, immerse into the fictional world and identity with characters.

▶ Key Words: "Nungil", deixis, text world theory, deictic shift theory, probability of fiction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hanmarian @dongguk.edu

관심 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